

중국진출 일본 수출기업들, 중국탈출 가속

-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과 사회보장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탈 중국화가 가속되고 있으나, 중국의 철수장벽 때문에 마음대로 철수도 못하는 상황임
- 다만, 내수부문은 아직은 중국 현지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나, 향후 코스트 상승과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경우 일본이나 제 3국으로의 U턴 내지는 P턴이 불가피

- 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 급등을 배경으로, 수출거점으로서 중국공장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재평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
 - 중국거점을 철수하는데 장벽이 있기는 하나, 중국에서 생산거점으로써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

□ 오프론(주)의 사례

- 중국에서 20년째 혈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오프론은 2014년부터 가정용 혈압기 생산을 일본에서 재개하기로 함
 - 1990년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할 당시에는 일본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인건비가 낮았으나, 현재는 중국의 인건비 급등으로 차이가 4배로 축소
 - 대상품목은 고급기종으로 마쓰사카공장에 자동화 라인을 도입, 생산하여 국내 판매 외에 아시아에 수출할 계획
 - 중국에서 1,000만개 정도 생산하고 있으나, 동남아시아 수출용인 범용제품은 베트남으로 생산이관을 추진 중

□ 후루카와전공(주) 사례

- 후루카와전공(古河電工)은 2015년을 목표로 중국에서 생산했던 자동차부품인 와이어하네스의 대일 수출을 절반으로 줄여, 현재는 연간 650억엔 정도를 일본 국내업체에 판매, 이중 20%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음
 -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치안불안 등으로 중국 공장에서는 내수[민 치중할 방침인데, 이를 위해 2014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필리핀에 신규 공장을 설립, 수출거점으로 육성할 방침

□ 일본장기제약(주)의 사례

- 의약품 분야에서도 일본장기제약(日本臓器製薬)이 진통제의 중간원료 생산을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개시할 계획인데, 인건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 주목적임

□ 인건비 급등에 사회보장비도 부담

- 중국의 인건비는 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하면 과거 3년간 60%이상 상승, 환율 영향도 있어 아시아 신흥국들 가운데 최고 수준
 - 이 때문에 올림피스는 중국 광둥성에서 디지털카메라 생산을 중단하고, 여타 품목으로의 전용을 검토하는 등 생산체제를 재검토
- 중국 상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對중직접투자는 2012년에 전년보다 49.6% 증가했으나, 2013년 1~3월 기간 중에는 전년 동기대비 10.5% 증가에 그침

□ 내수용은 현지생산 체제를 유지

- 그러나 최종제품에 대한 중국의 시장규모는 당분간 확대될 전망이어서, 내수용 생산은 유지하고, 수출부분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
- 미래에 수요가 증가할 저연비차량이나 고급차량의 현지수요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동차업체들은 하이브리드자동차(HV)등의 현지개발·생산을 강화할 방침
 - 도요타는 이르면 2015년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현지 생산할 계획
 - 고급차분야는 닛산자동차가 인피니티 차종의 현지생산을 2014년부터 개시할 방침인데, 중국 현지에서 수출중심인가 아니면 내수용인가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이 차이가 있음

□ 생산거점 철수의 장애요인

- 중국정부는 주재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시행
 - 북경, 천진, 청도, 성도, 소주 등지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기 시작함에 따라 1인당 약 80만엔 정도 부담액이 증가
- 9,000개사 정도 일본계 기업들이 집적해있는 상해에서는 외국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행을 보류

- 그러나 상해에서도 가입이 의무화되면 주재원 수를 줄이는 등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하는 일본기업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
- 센카구도를 둘러싼 일중간 대립도 계속되는 가운데, 반일 기운이 높아져 중국에 부임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도 있을 정도임
- 더구나 중국에 일단 진출하면 생산거점을 철수하기가 그리 쉽지 않음
 - 세수 감소를 이유로 중국지방정부에서 동의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, 지방정부의 승인을 얻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노동쟁의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음
 - * 2012년 11월 자동차부품 업체인 야자키소교(矢崎総業)의 공장이전에 관련된 스트라이크가 발생

□ 시사점

-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진출 일본기업들의 P턴 내지는 U턴 사례가 적지 않은 가운데, 설상가상으로 치안불안에도 사회보장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일본기업들은 진퇴양란 상황
 - 철수장벽 때문에 그나마 마음대로 중국에서 철수하지도 못하는 사면초가 상황
- 對중국직접투자는 무역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수평적인 해외직접투자 유형보다는 생산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수직적인 해외직접투자유형의 성격이 강함
 - 그러나 최근 임금 등의 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 내수지장을 겨냥한 수평적인 투자유형의 성격으로 전환
- 사례에서 본 것처럼 중국진출 일본기업들 가운데서도 수출부문은 중국내 수출거점을 제 3국으로 P턴, 내지는 일본으로의 U턴하는 반면, 내수부문은 중국 현지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
- 중국에서의 기업비용 상승폭과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경우, 중국의 내수를 겨냥하여 진출한 기업들에까지도 탈중국화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 - 그러나 역설적으로, 코스트 상승, 리스크 증대 등을 현지화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음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3.6.18)